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한전 광주전남본부



1부서 1시장 자매결연 협약식(사진 오른쪽 임낙송 한전 광주전남본부장) 2 남광주시장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낙송)가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한전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발벗고 나섰다.

한전은 전국 모든 시·군 단위에 사업소가 있어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이 추진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활동은 사라져가는 전통시장의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월 17일 광주 남광주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임낙송 본부장과 광주상인연합회 손중호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1부서-1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전남본부는 본부 내 24개 부서와 말바우·양동시장 등 광주광역시 소재 14개 전통시장을 상호 매칭해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고, 부서별 협약으로 시장에 대한 각종 지원 활동을 지속해서 펼치게 된다.

향후 광주전남본부 28개 사업소의 93개 부서와 광주·전남권 120개 전통시장에도 지원 활동을 확대해 전통시장 기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전 사업소의 '전통시장 기 살리기' 동참을 통한 연간 전통시장 이용 금액은 연인원 6만여명 기준 약 10억8천만원이 예상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물품 구매하기, 장보기, 각종 부서 간담회 및 워크숍 시행 후

전통시장 내 음식점 이용하기 등 전통시장과 함께 상생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광주전남본부는 임직원 500여명이 참여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진행했으며, 매월 직원들의 월급 일정액을 모아 조성한 기부금으로 전통시장에서 쌀과 과일 등을 구매해 다문화 가정(고려인 마을)에 전달했다. 또 전통시장 이용 시 편의성을 높이는 접이식 핸드 카트와 장바구니를 상인들에게 전달했다.

광주전남본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등에 6억원을 지원하고, 봉사활동에 연인원 1천100여명을 투입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속해서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내 전력 설비 점검 등 시장 상인들의 전력사용 관련 불편함을 해소하고 다각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각 부서와 전담 시장 간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전력 설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호남 최대규모 전통시장인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지중화 공사를 현재 시행 중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호남권을 대표하는 현대화 시장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 전남본부 관계자는 "전력 설비 안정화와 지역경제의 상생 가치를 추구해 사라져가는 전통시장의 가치를 지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